

스에 대한 추억

김 혁/35세, 영화평론가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있었던 스이라는 친구는 소위 캡틴이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는 학기가 시작한 지 일

마 되지도 않아서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 아이들을 한명씩 불러서 자리에 오게 한 후 너 누나 있느냐

라든가 '니네 아버지 뭐하느냐' 라든가 하는 신상조사를 하고 '까불면 죽어'라는 위협과 더불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버스표를 뺑뺑하고는 돌려 보냈다.

나는 부반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나한테는 그리 심하게 굴지 않았다. 나도 내심 마음 졸여 했지만 나한테는 가끔 농담이나 하고 웃기만 하는 애였다. 그애는 키도 크고 얼굴도 험상궂게 생겼는데, 외모상으로 일단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팔뚝에는 칼로 그은 자국이 선명했고 실제 나이도 또래보다는 위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애 앞에 불러가는 순서는 키가 작은 순이었다. 또 공부 잘하는 애는 별로 건드리지 않았다. 힘없이 나약한 애들만 얻어터진다.

어느날 시험보기 전날이었다. 스이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다. 아주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은근히 나에게 즐라됐다. 내일

뒷자리에 앉을테니까 답안을 달라는 것이었다. 내 성격으로 겁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뒤에서 컨닝한다는 것도 아니고 종이에 답을 써서 자기에게 건네달라니 정말 못할 것이었다. 나는 못한다고 했지만 겁이 났다. 당장이라도 주먹이 날라와 턱을 강타할 것 같았다. 그는 때리지 않았다. 부탁한다면서 눈짓을 하고 사라졌다.

나는 집으로 와서 계속 고민을 했다. 컨닝을 하거나 답안 종이를 넘겨 몰래 보는 일이 비밀비재했다. 하지만 하는 애들만 했다. 그 많은 애들은 놔두고 하필이면 스이 왜 나를 택했을까. 정말 재수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당일날 정말 스이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스은 시종 빙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시험이 시작되어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스이 의자를 두어번 툭툭 건드렸다. 어제 나에게 말해주고 간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가 무얼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체했다. 의자가 계속 덜컹거렸다. 내 심장은 그에 따라 점점 더 쿵광거렸다. 하지만 내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나는 계속 모른 체하고 문제를 풀었다.

시간이 갈수록 뒤에서 스의 식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조마조마했다. 스의 손가락이 내 등을 쿵 찔렀다. 나는 너무 놀라 움찔거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스이 나를 다시 불렀다. 왜 안 보여 주느냐는 거다. 나는 선생님 감시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스은 이번엔 꼭 보여줘야 한다고 올려대곤 2교시에 들어갔다. 2교시도 책상이 계속 덜컹거렸지만 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3교시에 들어갔다. 뒤에서 시험을 거의 포기한 듯한 식식거리는 소리가 내마음을 더욱 어지럽혔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3교시가 끝난 후엔 스은 나를 아예 불러내지도 않았다. 어울리는 친구들과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있었다. 나는 그

의 눈을 피하면서 화장실로 향했다. 내 뒤전으로 '에이 시험 잡쳤다'는 등의 스의 푸념이 들려왔다.

이제 마지막 4교시다. 이번엔 스의 신호조차 오지 않았다. 내마음은 더욱 불안했다. 화가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구나, 시험이 다 끝난 후 종례를 마쳤다. 이제 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스의 두주먹이 내턱을 강타하면 나는 어떻게 그걸 피할까를 궁리하고 있었다. 스은 내게 오지 않았다.

우리반에서 제일 위협적인 존재였던 스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동안 나를 지배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얼마나 단순하고 불쌍한 애였던지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특히 스이 다른반 누구한테 얻어맞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더욱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연합고사가 다가오면서 스의 초조함을 나는 특별히 읽을 수 있었다. 그에게는 맘 잡고 공부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1차 야간학교 발표가 있었고 그는 미달로 합격했다. 스의 기뻐 날뛰는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양처럼 순한 그의 표정을.

